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조희진 검찰 성추행 조사단장은 사퇴해야 한다

지금 검찰은 성추행 성희롱으로 얼룩지고 있다. 국민의 가까운 눈총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사실을 알고 보면 눈총과 손가락질을 받을 만도 하다. 더욱 엄중한 지탄(指彈)과 규탄(糾彈)을 받는 것이 검찰에게는 입에는 쓸지 몰라도 약이 될는지 모르다

관객 700만 명을 동원한 영화 '1987'에서의 검찰과 경찰은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대의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중앙정보부(국정원)과 검찰 경찰이 합작하여 물고문으로 박종철 서울대생을 죽여 놓고도 강인장 치안본부장(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하여 "조사도 중에 박자를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은폐 조작했다 그 후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을 '탁' 여 같은 소리'라고 유행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로 의심 받고 있는 'DAS'와 BBK 특별검사 정호영은 120여 명이 'DAS'의 회계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고 지금도 웃으면서 주장하고 있다. 법은 사회상규(社會常規) 상식이다. 회사의 일개 말단 여직원 한 명이 회사 공금 120여 원을 혼자서 횡령했다는 말을 믿을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없다.

청원지검 통영지청에 근무하고 있는 서지현 검사가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손석희 앵커와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이 2010년 10월 10일, 당시 이귀남 법무부장관도 참석한 어느 정례식장에서 인태근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 성추행(性騷擾)을 당했다고 털어 놓았다. 사건 후, 호소를 했

으나 최고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평소 엘리트 선민의식(選民意識)으로 권위적인 모습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과 이미지를 가졌던 검찰은 물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지난 8년 동안 서 검사는 트라우마로 마음 고생도 많았고 사무 감사와 검찰총장 경고 인사 불이익도 받으며 견디어 오다가, 이제 민주주의 시대가 조금 열리게 되니까,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성추행 사실과 부당한 업무 감찰 인사 불이익에 대하여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박 장관은 처음에는 이메일을 받지 않겠다고 하다가 서 검사 측이 이메일을 공개하자 1시간 후에 시인하고,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나중에야 법무부 검찰 간부가 서 검사를 면담했으나,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함께 조사해 달라고 했다는 서 검사측과 성추행은 덮어 달라고 했다는 면담 검찰 간부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면담 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법무부는 서 검사 성추행 사건을 포함하여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피해 회복 조사단'을 꾸리고 서울동부지검 조희진 검사장이 조사단장을 맡았다. 조 단장은 1호 여성 검사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서울 북부지방법검찰청 임은정 부부장 검사가 '조 단장은 사퇴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냈다. 사

퇴하라는 이유는 2016년 검찰 간부에 의한 여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여 달라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는데, 조 단장이 임 검사를 불러서 '글을 내려라' 정신과 치료를 받아라. 조직에 맞지 않으니 조직에서 나가라'는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폭언을 넘어서 협박이요, 인격 모욕이요, 직무 유기다. 여제는 본인이 2008년 경주지청에 근무할 당시에 집어까지 따러운 상사 부장검사에 게 폭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했다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리고 폭로했다. 2011년 이후 성추행 성희롱으로 징계 받은 검사가 11명이라는데, 밝혀지지 않고 징계 받지 않은 사건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남에게 차마 말하기 어려운 큰 상처다. 서 검사와 임 검사의 용감하고 정의로운 행동에 나도 당했다'는 비류(#ME TOO) 운동이 전 국민적인 호응을 얻고 번져나가고 있다. 당신들을 응원한다, 당신들과 함께 한다는 '위드유(#WITH YOU) 운동도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초임 변호사 시절, 검사장 출신 대형 로펌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털어 놓았다.

성추행 당했을 당시에는 자신의 처지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좀처럼 문제 삼기 어렵다. 나는 서 검사와 임 검사를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의미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서 검사가 정지권에 진출하려고 JTBC에 출연해서 폭로했다는 루머도 있지만 서 검사와 임 검사 같은 용기와 정의감을 갖춘 사람들이

이 정지권에 많이 들어와야 정의로운 나라가 정착된다고 나는 굳게 믿는다.

조 조사단장의 조사는 자기가 자기를 조사한다는 '셀프(SELF) 조사'라서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조 단장의 과거 언행까지 흑이 불어넣은 형국이다. 검찰은 진실과 정의를 밝히고 지키고 공지로 삼는 국가 기간조직이다. 검찰 조직의 성추행이라는 불명예에 셀프조사는 비정상, 여기에 조 단장의 자격 없음까지 흑이 불은 상황에서 조 단장은 본인을 위해서나, 조직을 위해서나 하루 빨리 깨끗이 물러나야 한다.

그래야 거짓과 왜곡, 무시와 봉개로 일관한 한심하고 권위적이며 비민주적인 작태와 조직문화를 씻어낼 수 있는 조그마한 발걸음이 될 수가 있다. 검찰이 하는 일 처리가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일으키고 하도 한심해서 보다 못한 국가인권위원회도 나서서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음으로 직권 조사하기로 했다. 국민적인 비난이 비등하자 법무부도 민간인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장관부터 말을 바꾸는 조직의 신뢰가 문제다. 힘없는 약자들인 촛불시민들의 간절함과 따뜻한 절규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지지와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 진실되게 책임을 져야 신신한다.

얼마 전, 나도 인권 침해의 피해자로서 검찰과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지금 조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경찰은 너무나 한심하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참다 참다 못 견디고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서 검사, 임 검사 같은 '피해자 중심' '약자 중심'이 아니고, '가해자 중심' '힘 있는 권력자 중심'의 마인드와 조사를 계속한다면 검찰과 경찰은 '진실과 정의, 국민'으로부터 멀리 동떨어진 불행한 조직이 될 것이다.

社說

입학전 예방접종 완료해야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가 초·중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입학 후 3개월간 확인하고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란다. 예방접종이 의무는 아니지만 단체 생활에 따른 감염 발생 등을 막기 위해 사전에 권장하는 것이다.

원래는 초등학교 입학 시에만 이러한 예방접종 대상이지만 올해부터 중학교 입학생도 교육·보건 당국의 정보시스템이 연계되면서 학교·보건소 담당자가 전산으로 접종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아이가 예방접종을 받고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했다면 보호자가 별도의 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초등학생은 입학 전까지 4가지 백신을 맞는 게 좋다.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를 예방할 수 있는 DTaP와 소아마비를 막는 폴리오,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을 예방하는 MMR, 일본뇌염 백신

등이다. 중학생은 2종이 필요하다.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를 예방하는 Tdap 또는 Td. 그리고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HPV(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다.

특히 중학교 입학생은 예방접종률이 낮은 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06년생의 Tdap/Td 접종률은 75.1%, HPV 접종률은 60.0%로 집계됐다. 이 중 HPV 예방접종은 2006년생이 중학교 입학 여학생이 올 12월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 2차 접종을 무료 지원받을 수 있다. 백일해 환자는 지난해 초·중학생 연령대에서 129건(잠정치)의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다.

학부모는 입학 전 자녀 접종 내용이 진신에 등록됐는지 모바일 앱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만일 빠진 접종이 있으면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전국 1만여 곳의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주소지 상관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니 경각심을 갖고 대처했으면 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金 生 麗 水

金 生 麗 水

▷ 뜻: 금은 여수(麗水)에서 남.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설 명절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

연일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기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난방기기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화재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

면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수가 63%에 이른다고 한다.

주택에서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특히나 소방서에서 거리가 멀고 인구의 대부분이 고령인 시골 마을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필요불가결한 존재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집안에 설치하여, 화재를 조기에 진화하고 신속히 감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이용하여 부모님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해드린다면,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안심되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되리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설 명절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합시다!

곽지현 /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details.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문화응성' (Cultural Resonance) featuring a woman and a man, with text about mutual respect and happiness.